

하이트진로, 청년 인재 지원 '청년창업리그' 성료

대상 '안주' 팀... "체계적 멘토링 큰 도움"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서울창업허브에서 '제3회 청년창업리그' 파이널 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대상은 한국의 가치를 소주잔에 접목시켜 프리미엄화한 '안주' 팀이 선정됐다.

청년창업리그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고자 서울시 후원으로 하이트진로와 서울창업허브가 공동 주최했다. 아이디어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 등 30개 팀의 본선 경쟁을 거쳐 최종 15개 팀이 파이널 대회에 진출했다.

올해는 맥주 생산 후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한 웰빙 식품 사업, IT기술을 활용한 외식업 아이디어, 반려견 사업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15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대상의 영예



제3회 청년창업리그 파이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주팀이 하이트진로 이영목 상무(오른쪽 두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는 소주잔에 한글을 새겨 프리미엄화한 '안주' 팀이 차지했다. 시장성, 창업 가능성, 창업자 역량 등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차지한 '안주' 팀 조정한 씨는 "하이트진로 청년창업리그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며 "사업 아이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 치열한 고민을 통해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은 맥주 생산 후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해 고단백 에너지바를 만든 '보디' 팀이, 우수상은 야구장 내 선주문 및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식관' 팀과 유저들의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소개한 '청개구리' 팀이 차지했으며 그 외 3개 팀은 장려상을, 8개 팀은 입선했다. 각 팀에게는 상금과 상장을 전달하고 이외에도 대상,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양심 냉장고, 이제 열어야 한다



기지수첩

이범종 (정책사회부)

1990년대 꼬마들의 양심은 이경규가 가르쳤다. 정지선을 지킨 운전자가 '양심 냉장고'를 받을 때마다, 양심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만큼이나 묵직하게 다가왔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1991년 민중서림 국어대사전)'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2007년 아이폰이 텔레비전 시대를 끝짓는 동안, 양심 냉장고 세대는 이마에 계급장을 달거나 전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목격한 군대는 '들어간 놈이 손해'인 20세기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5년 논산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에게 인분 먹기를 강요하며 '똥군기'를 실천했다. 같은해 김 모 일병은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졌다. 2010년에는 가수 MC몽이 고의로 이를 뽑아 입대를 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군가 산점과 현역병 처우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군대 내 자살자도 크게 줄지 않았다. 5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8년 군대 내 사망자 134명 가운데 자살은 75명, 안전사고는 58명이다. 지난해 사망한 75명 가운데

자살자는 51명으로 여전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민방위가 된 이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병역거부' 인정 소식을 들었다. 관련 뉴스 댓글은 "나는 양심이 없느냐"는 성토로 가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때의 양심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꽃피는 봄 가을 하루가 아쉬운 청춘에게 이런 정의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뿐이다.

지난 2일 만난 양심적병역거부자 박상욱(24) 씨도 현역병과 군필자의 분노를 이해했다.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폭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난해 7월 의정부 교도소행을 택했다. 박씨는 인터뷰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으로 박탈감을 줄이면서 징벌적 성격 없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말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표현의 자유, 다양성 추구가 맞물린 스마트폰 시대처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보는 관점이 여전히 이경규의 정지선에 멈춰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양심 냉장고의 문을 열 때다.

/*joker@metroseoul.co.kr

삼성전자 "S펜 체험하고 콘테스트 도전하세요"

삼성전자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몰, 서초구 파미에스테이션 등에서 'S펜 콘테스트'와 '게임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갤럭시 노트9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11월까지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S펜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스마트 S펜으로 그리거나 꾸민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누구나 S펜 콘테스트에 참여

할 수 있다.

S펜 콘테스트는 S펜으로 사진을 꾸민 '포토 아트'와 S펜으로 직접 그린 '드로잉 아트'의 두 부문으로 나뉘며, 매주 부문별 우수작을 선정해 갤럭시 노트9을 증정한다.

또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갤럭시 노트9 외에도 갤럭시 초초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70 사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광장의 갤럭시 스튜디오에 마련된 S펜 드로잉 존에서 '갤럭시 노트9' 팬들이 '스마트 S펜'의 다양한 기능을 배우고 직접 그려보고 있다. /삼성전자

오늘의 운세 http://www.saju4000.com

<p>48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0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72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84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는 법.</p>	<p>5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6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으니 넓은 아량이 필요. 78년생 확실한 복수는 상대를 완벽히 잊어주는 것. 90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p>
<p>49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마음을 달래준다. 61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73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85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p>	<p>5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야 한다. 67년생 숫자 6, 옷은 파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7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이다. 91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p>
<p>50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2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4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누에게도 눈길을 주지 마라. 86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를 지경.</p>	<p>56년생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 마음이 즐겁다. 6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80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시작되니 잠시 지체하라. 92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p>
<p>51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계속 생긴다. 63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5년생 밭을 두러워하면 좋은 곡을 얻을 수 있다. 8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다.</p>	<p>57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69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81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속이 상한다. 93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p>
<p>52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겁게. 64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없다. 76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88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p>	<p>58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70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82년생 희로애락을 함부로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94년생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p>
<p>53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 65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 통일이 어려워니 중심을 잘 잡자. 77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 89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p>	<p>5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71년생 배우자가 내게 가장 큰 조력자임을 명심. 83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 95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p>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6	5					2 8
6	7							
	5 4			6 2				
			7 1					
	8 2			5 3				
3	6							
		3 4				9 7		
		1					3	

						1 4 7		
			7 3				9	6
		9			6			1
		8		7 3 6				
		3 7		9 2		5		
		2	1					3
		1 4						

스도쿠 정답

2	5	9	1	6	7	8		
6	9	8	7	5	1	2		
1	8	6	2	5	9	1		
1	9	5	6	7	8	2		
5	8	7	1	2	9	6		
6	2	9	8	7	5	1		
8	1	7	6	2	1	9		
8	2	1	5	9	1	6		
9	6	2	1	8	5	9		
5	9	2	1	6	7	1		
8	1	7	9	1	5	2		
1	6	7	8	5	2	1		
7	8	5	1	2	6	9		
6	2	9	8	1	5	7		
8	1	2	9	7	8	6		
9	5	6	2	1	8	7		
2	1	5	8	9	2	6		
2	8	6	1	7	9	1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 4계 아이 앞길 막는 헬리콥터맘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쉰다. 차분한 성품의 사주여사 그런 것 아니냐고 필자에게 물어보는데 그런 현상은 사주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포태법으로 보면 장생에 해당하는 사주이다. 장생이란 활동력이 강한 형상이니 아이가 도통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엄마의 생각인 것이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졌다. 지나친 사랑이 간섭으로 엄마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직접 해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체험학습 숙제를 하는 아이에게 장소를 섭외해주고 일정을 세세하게 짜주는 건 물론이며 체험 장소까지 일일이 차로 태워다 주었다. 방학 때 친구들과 1박2일 여행을 가겠다고 하자 엄마가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아이들이 아예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근처에서 항상 떠돌며 아이를 감시하다시피 하는 '헬리콥터맘'이었다. 아들은 도전할 줄 알고 부딪치고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다. 그런 아이가 실행력이 부족하게 된 건 헬리콥터맘인 엄마가 원인이었다. 사주에서 장생은 식물이 새로운 싹을 틔우듯 무에서 유가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장생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명량한 성격에 정의감이 있고 무언가에 몰입하면 파죽지세로 밀고 나간다.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모든 걸 해주고 있으니 정작 아이는 자기가 해야 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서양의 유명한 아동학자는 부모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들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게 그것인데 사랑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며 쟁취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그런 권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말한다. 뜻밖에도 엄마가 아이의 기를 꺾고 있는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 간섭을 줄이고 토대만 마련해 준다면 아이는 부모의 생각 이상으로 탄탄한 길을 걸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40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177호